

# 확 바뀐 벤츠 10세대 E-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10세대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이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모델들이 이번에 출시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를 선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수입차 1위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10세대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이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딜러 신성자동차도 광주전시장에서 E-클래스 출시를 기념한 행사를 개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10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클래스는 1947년 출시 이후 전 세계 1400만대가 판매되는 등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2016년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로 지난 3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그동안 E-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쌓아온 기록들을 이어갈 수 있을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세대 E-클래스는 출시 3년만인 지난해 7월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량 1위로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관은 완전 변경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날렵한 모습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 주야간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더 뉴 E-클래스 아방가르드 라인 모델은 두 개의 크롬 루브르와 세로형 고풍택 블랙 스트럿으로 장식된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및 고풍택 블랙 트림의 프론트 범퍼가 적용돼 우아함을 강조했다.

후면부에는 트렁크 라인 안쪽까지 넓어진 신규 디자인의 분할형 테일램프가 적용됐고, 이와 더불어 트렁크 리드 및 리어 범퍼

**부분 변경 모델 국내 출시 외관 다이내믹해지고 첨단기술 스티어링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초미세먼지 상시감시 23~24일 광주 설명회**

의 디자인 변경으로 스타일도 새로워졌다. 실내의 경우 브랜드 최초로 더 뉴 E-클래스에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은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인 동시에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스티어링 휠의 림 앞면과 뒷면에 센서 패드를 탑재해 정전식 핸드스-오프(Capacitive Hands-Off) 감지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도, 차량 내 각종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운전자는 차량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전 모델에 기본으로 와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와 MBUX,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모델 최초로 적용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특히 더 뉴 E-클래스에는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술도 있다. 차량 내 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내기 순환모드를 통해 공기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에어 쉼리티 패키지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에만 제공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E-클래스를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고성능 메르세데스-AMG 모델을 비롯한 총 6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이달 중 더 뉴 E 220 d 4MATIC, 더 뉴 E 250, 더 뉴 E 350 4MATIC 모델을 시작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고성능 메르세데스-AMG 등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세 제원은 추후 공개된다.

더 뉴 E-클래스의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은 ▲E250 아방가르드 6450만원 ▲E250 익스클루시브 6890만원 ▲E220d 4매틱 익스클루시브 7550만원 ▲E220d 4매틱 AMG라인 7790만원 ▲E300e 4매틱 익스클루시브 8390만원 ▲더 뉴 E350 4매틱 아방가르드 8480만원 ▲E350 4매틱 AMG라인 8880만원 ▲E450 4매틱 익스클루시브 1억470만원 ▲AMG E53 4매틱+ 1억1940만원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딜러 신성자동차는 E-클래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오후 3시 광주전시장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당일 추첨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운의 복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제네시스 G80 베스트셀링카 '톱10' 눈앞

■ 국내차 1~9월 판매 순위

순위	차명	브랜드	판매대수
1	그랜저	현대차	11만3810
2	포터	현대차	7만1347
3	K5	기아차	6만6716
4	아반떼	현대차	6만3570
5	쏘렌토	기아차	6만2622
6	쏘나타	현대차	5만2370
7	봉고	기아차	4만7204
8	팰리세이드	현대차	4만6602
9	싼타페	현대차	4만3100
10	셀토스	기아차	4만2774
11	G80	제네시스	3만9133



1~9월 국내 판매 3만9133대로 11위 고급차 시장에선 수입차 제치고 1위

제네시스의 대표 세단 G80이 국내 베스트셀링카 10위 안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제네시스 모델이 베스트셀링카 상위권 10위 안에 오르는 것은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80은 올해 1~9월 국내에서 3만9133대를 판매하며 같은 기간 국내 판매량 10위인 기아차 셀토스(4만2774대)의 뒤를 쫓고 있다.

월평균 6000여대가 판매되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G80은 2008년 1세대 모델(BH)과 2013년 2세대 모델(DH)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생을 이끈 대표 볼륨(많이 팔리는) 차종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한 이후에는 2016년 6월 2세대의 상품성 개선 모델부터 G80으로 출시됐다.

처음 G80 이름을 달고 출시된 2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은 고급화된 디자인과 새로운 안전 사양인 제네시스 스마트 센서를 탑재, 한 달 만에 사전계약 대수가 1만대를 돌파했다. 2세대 G80은 올해 2월 단종될 때까지 총 12만4325대가 팔렸다.

올해 3월 말 출시된 3세대 모델(디올 뉴 G80)은 제네시스 디자인 상징인 크레스트(방패 모양) 그릴과 두 줄의 쿼드 램프에다 더 넓어진 공간, 첨단 안전-편의 사양 등으로 제네시스의 대표 고급 세단으로 자리 잡았다.

출시 첫날에만 2만2000대가 계약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G80의 올해 1~7월 판매량(2만8993대)은 작년 G80 전체 판매량(2만2284대)을 넘어섰다. 9월 국내 판매량은 6040대다.

G80의 선전에 힘입어 제네시스(7만

7358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수입차를 누르고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베스트셀링카는 매년 판매 대수가 많은 순으로 톱 10위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2000~2010년은 현대차 쏘나타가 1위를 지켰고 2011년부터 3년간 아반떼가, 2017년부터는 그랜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국내 판매 1위 자리는 그랜저가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랜저의 1~9월 누적 판매량은 11만3810대로, 2위인 현대차의 상용차 포터(7만1347대)와 4만대가량 차이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터와 기아차 K5(6만6716대), 아반떼(6만3570대), 쏘렌토(6만2622대) 등 현대차그룹 내에서 2위 경쟁이 치열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기아차 '2021 K5' 고급지네

선택사양 범위 확대

최신 기술·정숙함 더해



기아자동차는 K5 연식 변경 모델 '2021 K5'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형 K5는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고객 의견을 반영해 트림별 사양을 구성하는 등 선택사양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는 기존 K5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만 적용했던 앞좌석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2021 K5 전 트림으로 확대해 정숙성을 끌어올렸고,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A필라와 B필라에 니트 내장재를 적용하는 등 상품 전반의 고급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 기술을 선호하는 K5 고객 특성을

을 고려해 리모트 360도 뷰 기능을 2021 K5에 새롭게 추가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주변 전방위를 영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1 K5 판매가격은 2.0 가솔린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각각 ▲트렌디 2356만원(2435만원) ▲프레스티지 2606만원(2724만원) ▲노블레스 2803만원(2921만원) ▲시그니처 3073만원(3151만원)이다. K5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754만원 ▲프레스티지 2951만원 ▲노블레스 3149만원 ▲시그니처 3365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달 6000원에 타이어 렌트하세요

금호타이어 '도로로로 렌탈'

금호타이어는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도로로로 렌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로로 렌탈'은 금호타이어가 렌탈 플랫폼 '비에스렌탈'과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 점검도 받을 수 있다.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스포츠유틸리티차 차종까지 타이어 총 4분을 한 달 최저 6000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24개월, 36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전해수기', 200명에게 '도로로로 KIT',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